

정치 떠나 문필계로 망명한 자유주의자

컬처 & 피플

나의 한국현대사편 연 유시민

방송인·의원·장관...역동적 삶
적잖은 곡절 넘어 문필가로
“지적 소매상 역할에 충실할 것”

“프티부르주아 계층의 대구·경북 출신 지식 엘리트로서 젊은 나이에 이름을 알리고 출세를 했지만 결국 정치에 실패한 후 문필업으로 돌아온 자유주의자.”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한 이가 있다. 수사가 길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로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의 자신은 과거의 여러 정치적·사회적·개인적 자아가 겹쳐 형성된 복합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나온 삶이 역동적이고 ‘리버럴한’ 경향이 있었으며 적잖은 곡절을 겪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시민(56) 전 보건복지부장관. 기술한 대로 그가 규정하는 자신은 여러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그는 한때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의 이름이 내재하는 자장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그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왔다. 민주화운동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정당인, 국회의원, 장관... 다양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일관되게 자신만의 영역을 일구어오기도 했다. 다름 아닌 끊임없이 글을 쓰고, 읽고, 이를 토대로 지적 결과물을 완성해내는 것.

사실 그에게는 여전히 정치인 이미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그는 대중과 소통하는 인문교양 작가가 더 어울린다. 20대 중반 이후 글 쓰는 일로 밥벌이를 해왔으며 나름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기억하는 자의 광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청춘의 독서’ 등 다수의 책들은 강렬하면서도 의미 있는 울림을 주었다.

최근에 그가 독자들, 시민들과 의미 있는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빛과 그림자를 찾았다. 청소년을 위한 논술 특강에 초청된 것이다. 사실 기자는 그를 만나기에 앞서 적잖은 고민을 했다. 지금까지 ‘컬처 & 피플’은 작가나 미술가, 인문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인을 만나 그들의 삶과 예술적 성취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유시민은 문화예술인인가? 당연히 그는 근래에 역사를 주제로 한 ‘나의 한국현대사’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출생한 1959년부터 올해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대중의 ‘육망’이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본 현대사다. 혹여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선이 개입돼 있지 않나 싶지만, 읽어본 소감은 그다지 ‘정치적’이지 않다.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소통과 상황에 맞는 글쓰기 전략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예요.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주요. 물론 정치를 떠나다고 공언했기에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다소 마른 체형에 큰 키, 까무잡잡한 피부, 커다란 두 눈이 인상적이었다. 정치인보다는 자기 세계를 천착하는 학자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사실 이 책은 직업정치인의 옷을 벗고 작가의 길을 가겠노라 선언한 이후 펴낸 두 번째 저서예요. 그런데 왜 55년인가 공군할독자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1959년이고 올해가 2014년이어서, (유시민이) 보고 느끼고 겪은 주요 사건들을 들여다 보고 정리한 것이지요.”

책은 현대사라기보다 ‘현재사’ 내지 ‘당대사’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사실 역사에 관한 주제는 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이의 세계관, 타자의 역사인식, 정치적 지향도 규정되기 때문이다.

“보통 역사하면 옛날 얘기, 다시 말해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를 상정하기 마련이죠. 그러다보니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되구요. 그러나 현대사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이므로 누구든 자기 자신이 그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냉철한 관찰자의 입장보다는 변민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구요.”

그가 ‘나의 한국현대사’를 쓰게 된 이유다. 그는 역대 정권과 그에 상응하는 국민들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두 세력의 대표로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을 꼽는다. 이 같은 분류는 나름의 설득력을 지닌다.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 모두 우리의 과거이며, 하나만을 인정하는 자세는 온전한 역사인식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릴 적 방상마리에서 아버지로부터 역사 속 인물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순신, 제갈공명, 나폴레옹 같은 이들의 삶은 놀랍고 두 우리의 과거이며, 하나만을 인정하는 자세는 온전한 역사인식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그는 스스로가 정한 계획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남이 시키는 것도, 그렇다고 남에게 평가를 시키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 “돈이나 권력보다는 자신성과 지식을 가진 이를 우러러보며 내가 남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사회든 국가든 그 누구든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편이다.

‘문필가’ 유시민. 앞으로 그는 정치보다는 ‘지적 소매상’ 내지 ‘문필가’로 ‘유용한 정보를 흥미롭게 조리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더 의미있게 여울릴 것 같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며칠 전 TV 리모컨을 돌리다 반가운 얼굴이 보여 손을 멈췄다. 90년대 문화대통령으로 불렸던 가수 서태지였다.

한 종편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그는 “나만 늙나?”라는 자괴감을 들게 할 정도로 옛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날 기자의 시선을 끈 건 비단 그의 ‘방부채 동안’(童顏)만은 아니었다. 비록 외모는 변함이 없었지만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시선은 예전보다 넉넉하고 따뜻해졌기 때문이다. 신비주의 뮤지션이라는 굴레를 내려놓고 시대의 변화에 순응한 듯한 소탈한 모습은 ‘아티스트 서태지’를 느끼

음악적 색깔을 내세우기 보단 불혹을 넘긴 중년의 팬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클로징 멘트를 하는 서태지를 보면서 문득 지난 여름 감명깊게 봤던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이 떠올랐다. 영화는 한물간 음반 프로듀서와 스타 남자친구를 잃은 싱어송라이터가 뉴욕에서 만나 함께 노래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영화다. 감독은 도시적인 감각이 묻어나는 뉴욕을 배경으로 사랑과 우정, 음악과 성공, 청춘과 희망 이야기를 그려냈다. 특히 여자 주인공 키라 리와 리와 그룹 ‘마룬 5’의 애덤 리바인

‘우린 아직 젊기에’ 비긴 어게인!

게 했다. “서태지의 시대는 사실 90년대에 끝났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시간을)거꾸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음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 행복해요)”

사실 그는 오래전 마음을 ‘비웠던’ 것 같다. 지난달 컴백을 알리는 티저광고에서 “아직 우린 젊기에, 팬들은 미래가 있기에”라는 다소 ‘진부한(?)’ 메시지를 던졌다. 많은 팬이 기대했던 임팩트 강한 ‘신고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가사는 지난 95년 발표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컴백홈’의 일부로 당시 수많은 청소년을 ‘들었다 놔다’ 했던 노래다. 그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30~40대들이 과거 ‘컴백홈’에 열광했던 세대였던 만큼 이 노랫말처럼 다시 힘을 냈으면 하는 뜻에서 화두로 삼았다고 했다. 자신의

이 각각 불려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OST ‘Lost Stars’(길잃은 별)는 백미다. “God,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신이시여, 청춘이 청춘을 낭비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라는 가사말은 암울한 미래에 좌절하는 청춘뿐 아니라 고달픈 현실에 지친 중장년층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실제로 지난 22일 현재 ‘비긴 어게인’은 누적 관객 수 35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다양성 1위로 올라섰다. 이래적인 건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한국에서, 그것도 중장년층의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혹시 영화의 메시지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꽃보다 청춘’들이 많은 건 아닌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나간 청춘에 너무 아쉬워 하지 말자. 꿈을 꾸는 한, 그대는 영원한 청춘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국립광주박물관 30일 목판인출 기법 시연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교육관 세미나실에서 한국 전통 목판인출(木板印出·목판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을 찍어내는 일) 기법 특별 시연회를 개최한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목판 인쇄는 고려시대 ‘초조대장경’ 등 불교 경전 제작에 사용됐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문집, 공신록, 유교 경전 등을 제작해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특별 시연회에는 지난 30여

년간 전통 염색공예 연구와 전통 목판인출 연구에 힘써온 이병찬(82) 선생이 초대됐다.

이병찬 선생은 시연회에서 동사찬요(東史纂要) 문집판, 호랑이 부처(符籙), 십이지(十二支), 연꽃 등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목판을 전통기법으로 인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병찬 선생의 강의와 시연을 보고, 들은 뒤 전통 목판인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570-7053, 7068.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가입문의 1855-0000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지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루션셋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지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1855-1008)





헬로tv UHD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